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온 ○○○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아이 사진을 보여 준다.) 어떻습니까? 귀엽죠? (학생들 : 너무 똥똥해요!) 그런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아이를 보면 좋아 보인다, 귀엽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아이를 보고, 비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업이 중요하다 보니 체중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 비만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청소년기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6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청소년기에 각종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만은 정신적인 측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요즘 사회에서 비만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각자의 체질량지수부터 알아봅시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고 키가 160cm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60/(1.6×1.6)=23.4'가 됩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시간을 준다.) 다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보여 준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청소년에게 맞는 비만 진단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질량지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비만으로 나온 학생은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청소년 비만은 체중 감량이 아닌 체중 유지를 목표로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 행동 수정을 함께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키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성장이 끝났을 때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오히려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 다음은 위 강연을 위한 사전 계획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 강연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①

2. 청중 분석
· 대상 : 청소년
· 특성 : 학업에 신경을 쓰느라 체중 관리에 소홀함.....②

3. 강연 전략
· 질문을 통해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유도함.....③
·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극복 사례를 제시함.....④
·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강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⑤

2. 위 강연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만을 진단할 때 청소년기의 성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② 무리한 체중 감량이 불러올 문제점까지 언급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청소년기 비만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④ 청소년 비만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의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⑤ 체중 유지만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심각한 비만의 경우에는 해결 방안을 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 다음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장: 오늘은 봄 체험 학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서: 저는 한국미술관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조선 시대 회화 특별전>을 한대요. 교과서에서 보았던 겸재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반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현수: 미술관이 뭐예요? 새 학년이 되어서 서로 서먹한데 우리 공이라도 한번 차려 가죠. 몸으로 부대끼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잖아요. 다들 내 의견에 동의하시죠?
 부반장: 다른 사람 말도 들어 봐야죠.
 지수: 그러지 말고, 민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전엔 미술관 가고, 그 옆에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오후엔 현수 말대로 체육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① 반장은 의사소통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② 민서는 의사소통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③ 현수는 다른 의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부반장은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지수는 합리적인 사고로 대안 도출에 기여하고 있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민주야, 오늘 과학 시험은 잘 쳤니?
 민주: (풀 죽은 목소리로) ㉠ 선생님, 피곤해서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
 교사: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구나.
 민주: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사: 그러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렴.
 민주: 선생님, 저 정말 바분가 봐요. 오늘 과학 시험에서 쉬운 문제를 또 틀렸어요. 과학 공부만 정말 많이 했는데.....
 교사: (걱정스런 눈길로) 시험을 못 쳐서 속상한 모양이구나.
 민주: 수능 때도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하죠?
 교사: ㉡ 수능 때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걱정되는구나.
 민주: (한숨을 쉬며) 네, 선생님. 정말 걱정돼요.
 교사: ㉢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공부하다 보면 잘 되지 않겠니?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
 민주: ㉣ 저도 노력하면 될까요?
 교사: 우리 민주가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잘 알고 있지. 저번 과학 시간에 실험 보고서 발표할 때도 민주가 잘했다고 과학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민주: (속스러운 목소리로) ㉤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교사: 아니야, 과학 선생님께서 보고서 내용도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민주: 그래요? (전보다 밝아진 얼굴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교사: 다행이구나. 민주야, 배고픈데 학교 앞 분식집에 가서 같이 김밥 먹지 않을래? 선생님이 한턱 낼게.
 민주:
 교사: (문 앞으로 가서 민주에게 손짓한다.)

4.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과학 시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사소통에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다.
 - ③ ㉢: 발화 형식은 의문 형태지만, 발화에 담긴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격려로 볼 수 있다.
 - ④ ㉣: '교사'의 위로를 기대하는 '민주'의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교사'의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위 대화 속의 비언어적 표현 중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결과>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메시지와 모순되는 경우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말과 상반된 심리 상태를 드러냄. ①
 (전보다 밝아진 얼굴로): 교실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나타냄. ②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메시지를 보충하는 경우
 (걱정스런 눈길로):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③
 (한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경우
 (문 앞으로 가서 민주에게 손짓한다.): 상대방에게 오라는 의미를 전달함. ⑤

6.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일보 20△△년 △월 △일

CCTV 설치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3월,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내세워 CCTV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CCTV 등 방범용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조건>

-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바꿀 것.

- ① CCTV 설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범죄 예방만을 중시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CCTV 설치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점을 활용하여,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CCTV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CCTV 설치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CCTV 설치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편안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7~8]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글쓰기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주제문 :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 내용 생성 계획 :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본다.
- 내용 구조 및 전개 계획 : ㉠
- 각 문단의 주요 내용
 1.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발생량 실태
 2. 세대 수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푸짐한 상차림 문화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
 3.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4.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사례와 그 효과
 5.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7. '글쓰기 계획'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의 대조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② 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소개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 ③ 조사 자료를 근거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우수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한다.
- ④ 시대에 따라 대상이 변화해 온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 ⑤ 대상의 현황을 소개한 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8. '글쓰기 계획'과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학교 급식소 입구에 붙일 문구를 만들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주제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것.
-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구를 사용할 것.

- ① 내게 알맞은 식사량, 뒷사람 위한 소중한 배려! 당장 오늘부터 잔반을 줄여 봅시다.
- ② 당신이 무심코 흘린 쌀 한 톨, 되돌릴 수 없는 환경오염! 나부터 잔반을 없애 봅시다.
- ③ 버려지는 음식물, 그 안에 경제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떠간 음식을 남기지 말고 먹읍시다.
- ④ 남긴 만큼 자연이 오염되고, 줄인 만큼 자원이 절약됩니다. 먹을 만큼만 받아서 잔반을 줄입시다.
- ⑤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잔반을 줄여 환경을 보호합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과제	다음 그림에서 연상되는 글을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p>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였다. 그림을 보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떠올라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어머니께 내 마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했다.</p>	
학생의 글	
<p>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은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따뜻한 분이세요. 그 그림을 보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비에 젖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에이라는 사실도 물론 채, 그저 ㉢비가 내리지 않는 줄로만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살았지만 이번 작문 과제를 ㉣이유로 ㉤보답하는 착한 ○○이가 될게요. 어머니, 사랑해요.</p>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계획에 맞게 글의 중심 내용을 수정한다.
- ② 다른 글을 참고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 ③ 예상 독자의 취미를 고려하여 글감을 마련한다.
- ④ 작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형식의 글을 쓴다.
- ⑤ 작문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되새겨'를 삭제한다.
- ③ ㉢은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비가 내리는 줄로만'으로 수정한다.
- ④ ㉣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계기'로 수정한다.
- ⑤ ㉤은 문장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사랑에'를 추가한다.

11. <보기>에서 (㉠)과 (㉡)의 '음운 변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음운 변동의 예 : **술한** → **[술한]** → **[수탄]**
 (㉠) (㉡)

- | | |
|------|-----|
| (㉠) | (㉡) |
| ① 교체 | 축약 |
| ② 교체 | 첨가 |
| ③ 탈락 | 축약 |
| ④ 첨가 | 교체 |
| ⑤ 첨가 | 탈락 |

12. <보기>는 '문장의 종류'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문장의 종류

-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예) 날씨가 맑다.
-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 안은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예) [㉠]
 - 이어진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① 민수는 성격이 좋은 학생이다.
- ② 우리 집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다.
- ③ 다예가 교실에서 소설책을 읽었다.
- ④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 있다.
- 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13 <보기>에 나타난 담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말하는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③ 집단의 방침을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 ④ 심리적 정서를 전달하여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있다.
- ⑤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4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탐구 학습이다. (가)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문제 제기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 보자. [예문] 하늘이 푸르다.
탐구 과정	<pre> graph TD Q[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 예 --> A["'하늘', '푸르-'"] Q -- 아니요 --> B["'이', '-다'"] A --> C[실질 형태소] B --> D[형식 형태소] </pre>
탐구 결과	'하늘'과 '푸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이', '-다'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므로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연습 문제	(가) 형은 집에 있다.

- | | | |
|---|---------------|---------------|
| | <u>실질 형태소</u> | <u>형식 형태소</u> |
| ① | 형, 집 | 은, 예, 있-, -다 |
| ② | 집, 있- | 형, 은, 예, -다 |
| ③ | 형, 집, 있- | 은, 예, -다 |
| ④ | 형, 집, 은 | 예, 있-, -다 |
| ⑤ | 은, 있-, -다 | 형, 집, 예 |

15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 원래의 어근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밤낮'은 '밤'과 '낮'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는 밤낮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해 있다.'에서 보듯이 '늘'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① 그는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 ② 그는 이번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 ③ 그는 큰 폭발로 건물 전체가 축발이 된 것을 보았다.
- ④ 그는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 ⑤ 그는 숨이 막힐 것 같고 흡사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16~17 다음은 독서 방법에 관해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 의리(義理): '책에 담겨 있는 올바른 이치'를 뜻함.

(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읽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아무리 난해해도 계속 읽으면 곧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각주, 주석, 참고 문헌 등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읽는다. 탄 데로 새면 길을 잃게 된다. 모르는 문제는 붙들고 있어봤자 풀 수 없다. 다시 읽어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읽어야 한다.

16 (가)와 (나)의 독서 방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비해 (나)의 방법으로 읽으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겠군.
- ② (가)의 글쓴이는, (나)의 방법으로 읽으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겠군.
- ③ (나)의 글쓴이는, (가)의 방법으로 읽으면 글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④ 동일한 책을 한 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의 방법이 (나)보다 훨씬 많이 들겠군.
- ⑤ 책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려면 (나)의 방법보다 (가)의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이겠군.

17. 독서 수행에서 (가)의 조언이 가장 필요한 학생은?

- ① 시훈: 교양을 쌓고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청소년을 위한 철학서를 집중해서 읽는다.
- ② 해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의 감동적인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지에 감상을 적어두며 읽어 나간다.
- ③ 동완: 어려운 과학 도서를 골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건너 뛰며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게 없지만 계속 읽어 나간다.
- ④ 현서: 경제학 이론을 알고 싶어 독서를 시작했지만 경제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워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사전을 참고하여 읽어 나간다.
- ⑤ 은기: '고교생이 읽어야 할 소설 50선'의 작품을 읽으면 작품 이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읽은 후 독서 감상문을 작성한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넓은 의미로 적정기술은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좁은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나) 적정기술이 사용된 대표적 사례는 아바(Abba, M. B.)가 고안한 향아리 냉장고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골 농장에는 전기, 교통, 물이 부족하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향아리 두 개와 모래흙 그리고 물만 있으면 채소나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 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다. 한여름에 몸에 물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지는 데, 이는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향아리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 다시 보충해서 사용하면 된다.

(라) 토마토의 경우 향아리 냉장고 없이 2~3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향아리 냉장고를 사용하면 21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 덕분에 이 지역 사람들은 신선한 과일을 장기간 보관해서 시장에 판매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마) 적정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술 중의 하나로, 어떤 지역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이다. 1970년 이후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현지에 보급되어 왔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는 기술의 보급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18.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적정기술의 개념
- ② (나): 향아리 냉장고가 나오게 된 배경
- ③ (다): 향아리 냉장고에 적용된 원리
- ④ (라): 향아리 냉장고의 효과
- ⑤ (마): 적정기술의 전망

[19~20] '향아리 냉장고'에 대해 <보기>와 같은 보충 자료를 찾았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A] 향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큰 향아리 안에 작은 향아리를 넣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는다. 그 다음에는 젖은 천으로 안쪽 향아리를 덮는다. 그러면 수분이 바깥 향아리의 표면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안쪽 향아리의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지면 높은 온도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던 해로운 미생물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 또 젖은 모래는 단열 기능도 한다.

[B]

19. (다)와 [A]를 바탕으로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외부로 수증기가 나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군.
- ② b는 수분 보충만 이루어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군.
- ③ b는 a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④ c는 a에 있는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⑤ d에 있는 과일은 미생물의 활동이 줄어들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군.

20. '향아리 냉장고'와 유사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위성과 전자 지도를 활용해 모르는 길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가 수 있도록 한 내비게이션
- ② 엔진과 전기모터를 상황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유해 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만든 자동차
- ③ 가운데가 빈 드럼통에 줄을 매달아 굴러 차량 없이도 많은 물을 옮길 수 있도록 한 물통
- ④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함으로써 두께를 줄이고 화질을 개선한 텔레비전
- ⑤ 나노 기술을 통해 소량으로도 은의 탁월한 항균 효과를 살린 세탁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무리 튜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의 값이 요즘쯤 돈으로 쳐서 45만원이 넘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메추리알 하나의 값이 달걀 한 꾸러미 값보다도 더 비싸 질 수 있을까? 이 두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역사 책을 보면 1636년 네덜란드에서는 튜립 알뿌리 하나의 값이 정말로 그 수준으로 뛰어오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한때 메추리알 값이 그렇게까지 비쌌던 적이 있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닌 한, 상품의 가격은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튜립 알뿌리 하나의 값은 수선화 알뿌리 하나의 값과 비슷하고, 메추리알 하나는 달걀 하나보다 더 쌀 것으로 짐작해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 자주 목격되는데, 우리는 이를 '거품(bubbles)'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거품이란 것은 어떤 상품-특히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져 투기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것을 미리 사 둔 사람이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 너도나도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된다. 물론 ㉠ 이 같은 거품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고 언젠가는 터져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때 거품이 터지는 충격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 천정부지: 물가 따위가 한 없이 오르지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심 화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일반적인 상식을 제시한 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거품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자주 일어난다.
- ② 거품이 터지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③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재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 ④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 ⑤ 일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2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회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을 개발하여 기존의 휴대폰보다 가격을 3배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 ② 작년 봄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배추 가격이 한 포기 2천원에서 1만 4천원까지 올랐다가 가을이 되자 본래 가격으로 돌아왔다.
- ③ 경제 개발로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중동 전쟁까지 겹쳐 원유 수입이 어려워지자 B 석유 회사는 석유 가격을 50% 인상했다.
- ④ 1990년대 일본에서는 땅을 사면 돈을 번다는 소문 때문에 너도나도 땅을 사기 시작하자, 상상하기 힘든 수준까지 땅값이 치솟았다가 얼마 후 급격히 떨어져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 ⑤ 생고무 생산국인 브라질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자 C 회사는 이미 수입한 생고무로 타이어를 만들어 기존의 가격보다 2배나 올려 판매하다 1년이 지나서야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했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 나온 단일 민족일까?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또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의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 한 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 않다. 또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 씨나 박 씨를 보더라도 그 시조는 앞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임을 표방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모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뻗어 나온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 잡아도 구한말(舊韓末)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에 단일 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신분 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의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겨레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600여 만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24. 윗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 시조이다.
- ② 나치의 민족주의에는 유대인에 대한 억압이 숨어 있다.
- ③ 단일 민족 의식은 신분 의식을 타파하는 데 가치가 있다.
- ④ 민족의 단결 의식을 고취하는 데 단일 민족 의식은 유용하다.
- ⑤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5.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 민족 의식은 구한말부터 생겼기 때문에
- ② 조선족은 동포인데도 국내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 ③ 토착 성씨들도 단군의 조상임을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 ④ 자기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는 성씨가 많기 때문에
- ⑤ 조선 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대상들의 동일성을 추구해 왔다. 그 동일성을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인간, 동물, 생물, 여성, 남성, 백인, 흑인 등과 같이 다양한 개체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개념들이다.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개체들이 가진 복잡성과 차이는 없어지고 획일화된다. 반면에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대상과는 차별화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 ① '우리', '한겨레' 등도 다양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말이 되겠군.
- ② '민족의식'이라는 것도 이성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나치 독일'이 '하나의 민족'을 내세운 것은 그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효과가 있겠군.
- ④ '독일인'과 '유대인'이라는 분류는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겠군.
- ⑤ 각각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우산 없이 뛰어 본 사람은 바람이 없는 날 ㉠ 술술 내리는 비가, 뭇 때에는 더 세차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 것이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은 비가 더 강하고 앞쪽에서 오는 것 같이 느낀다. 같은 빗줄기로 내리는 경우에도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 뛰면 비가 더 세차게 느껴질 텐데 과연 비를 덜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상대속도’와 ‘상대속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상대속도’이고 그것의 크기가 ‘상대속력’이다. 기차역에서 나란히 정차한 두 기차 가운데 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기가 탄 기차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심코 자기의 위치를 움직이는 기차에 대한 상대위치로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기차에 대한 상대위치를 생각하면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다른 기차에 대한 상대위치를 생각하면 자기 기차가 움직인다. 다른 기차가 앞으로 가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뒤로 가고, 자기 기차가 앞으로 가면 다른 기차가 상대적으로 뒤로 간다. 만약 두 기차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두 기차의 서로에 대한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으므로 상대속도의 크기는 0이다.

얼굴에 빗방울을 맞았을 때, 힘(충격량)을 느끼는 것은 빗방울이 내 얼굴에 맞아서 상대운동량(질량×상대속도)이 변하기 때문이다. 상대운동량이 커질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면 빗방울의 상대운동량이 0이 된다. 그런데 얼굴에 닿기 전의 상대속도가 클수록 상대운동량이 크고 따라서 빗방울이 얼굴에 닿을 때 변화가 더 커서 충격량이 더 크다. 겨울에 눈싸움을 할 때 같은 무게의 눈뭉치라도 세계 던질수록 맞으면 더 아픈 것은 이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직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천천히 걸으면서 맞는 것보다 뛰면서 맞는 경우 더 세게 느끼는 것은,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비가 앞에서 오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속도가 앞에서 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산을 그 방향으로 기울여야 좋은 방패가 된다.

사람이 맞는 빗물의 전체 양은 ‘단위시간에 맞는 빗물의 양 ×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뛰어가면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속력이 커지므로 단위시간(예를 들어 1초)에 맞는 빗물의 양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러나 뛰어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든다. 단위시간에 맞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맞는 빗물의 양은 빨리 될수록 줄어든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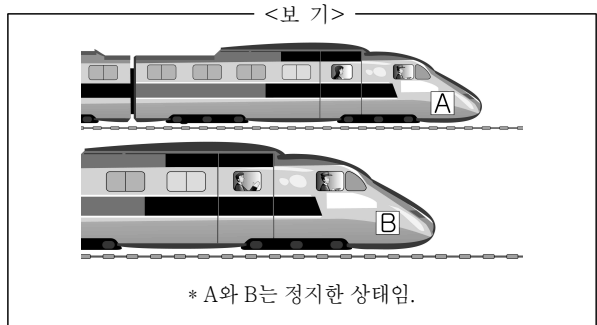
- ① 상대속도에는 방향 개념이 들어 있다.
- ② 상대속력은 상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 ③ 뛰어가면 단위시간에 맞는 빗물의 양이 줄어든다.
- ④ 비가 오는 방향으로 우산을 기울여야 비를 덜 맞는다.
- ⑤ 비가 올 때 뛰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비를 덜 맞는다.

28.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빗방울의 질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 ② 빗방울의 상대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 ③ 빗방울의 상대운동량이 0이 되기 때문에
- ④ 빗방울의 상대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 ⑤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승객은 B가 뒤로 가면 자신이 뒤로 간다고 생각한다.
- ② A가 앞으로 가면 A의 승객은 B가 상대적으로 뒤로 간다고 생각한다.
- ③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달리면 방향이 달라도 상대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 ④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속력이 달라도 상대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 ⑤ A와 B가 속력이 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와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의 상대속도는 같다.

30.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보기>

우리말의 특징에는 자음의 교체에 따라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같지만 단어의 어감만을 다르게 하는 어감의 분화가 있다. ‘술술’은 ‘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이라는 뜻인데, ‘쏟쏟’은 ‘술술’보다 더 강하고 센 느낌을 준다.

- ① 배다 → 빠다
- ② 뱅뱅 → 뺱뺱
- ③ 줄줄 → 쫄쫄
- ④ 감감하다 → 감감하다
- ⑤ 단단하다 → 뚱뚱하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라가 토끼를 업고 기슭을 내려가니, 물결이 위리령 출렁출렁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저 물 무서워 어찌 간단 말시오?”

“수궁 천 리 멀다 마시오. 유명한 선비며 장군들이 물길 따라 군주를 찾지 않았소? ㉠ 맹자도 천 리를 멀다 않고 가 양 혜왕을 보았고, 강태공도 문왕 따라 주나라에 가 공 세웠고, 한신도 소하 따라 한나라 땅에 들어서 그리 귀해졌다오. 토생원도 나를 따라 수궁에 들면 단번에 대장을 할 것이요, 고운 여인들과 밤낮 없이 더불어 만세토록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 나를 따라 수궁으로 가실 테요, 아니 가실 테요?”

“어서 가십시오.”

물가에 가 서니 농작 같은 물이 들입다 때리는 걸 토끼가 딱 보고서는,

㉡ “아이고, 죽어도 못 가겠소. 내 적이나 밋하면 따라가서 좀 보려고 했더니, 아 여보, 이리 가다가 용궁 문턱도 못 가 보고 죽겠소. 나 아니 갈라오. 별주부나 평안히 가시오.”

(중략)

“아이고, 이거 좀 놔라! 아이고, 나 똥 좀 누고 가자. 똥 좀 누고 가, 이놈아. 똥 누고 가!”

“아 이놈아, 물에다 누어!”

“아이고, 물에다 똥 누면 벼락 맞는다면서, 이놈아.”

“아 이놈아, 사공은 벼락 맞느라고 불일을 못 보겠구나.”

“아이구 이놈아, 그러면 그건 그렇다 하고 뒤지”는 똥으로 헐 것이냐?”

㉢ “아, 시방 뒤지가 어디 있어! 물에다 홀렁홀렁해 버려라.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병어리 된다. 이놈아, 인제 할 수 없으니 내 등에 업혀라.”

이리하여 만경창과* 거센 파도를 타고 남해를 바라고 길을 떠나 는구나.

토끼가 경망하여 자라의 낚시에 걸리기는 하였으되, 오죽이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든 제 고장을 떠나 낚신 고장으로 갈 생각을 하였으랴.

가면 갈수록 물도 산도 멀리 물러나고 사방에서 파도만이 출렁 출렁 덮쳤다 물러났다 할 뿐이다. 어찌 보면 무시무시하나 토끼는 지금 오히려 기쁘기 그지없다.

‘하늘이 나를 도우사 우연히 자라를 만나 세상살이 어려움과 산중 고생을 면하게 되다니, 암 다행이고말고. 용궁에 들어가서 부귀와 공명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라. 어서 수궁 가서 새로이 시작해 보세나.’

토끼는 덮쳐드는 파도도 저를 반겨 달려오는 용궁 벼슬아치 들로 보이고 제 마음도 파도처럼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지니 노래 가 절로 나온다.

[A] 이 풍진 세상 하직하고 떠나가노라.
물나라가 푸른 산보다 크고 좋으리.
자라 타고 이내 몸은 가고 또 가네.
오고 가는 흰 구름아 부러워하려무나.
이제 가면 붓을 잡고 역사를 써서
용궁 안 모두가 무릎을 꿇리도다.
지체 높고 재물 많은 몸이 되리니
백 년 천 년 길이길이 복을 누리리라.
토끼가 노래를 마치고 작은 배를 벌름거리면서 크게 웃자, 자라

는 피식 웃는다.

㉣ ‘이놈이 내 등에 앉아서 웃기까지 해? 교만하기 짝이 없군.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있어 보아라.’

자라는 토끼의 노랫소리를 받아서 한 곡 읊는다.

[B]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얼마나 바쁘게 청산에 다녔던고.
이 몸이 수궁을 아끼지 않음이여
파도를 막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룸이여
한갓 용왕님 기쁜 빛을 보려 하도다.
우리 임금님 병환 나으심이여
왕궁이 편안함을 기리도다.

토끼는 자라 노래를 무심히 듣다가, 제가 간사하다는 대목에서 더러 의심이 나,
“그대 노래 속에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인 곡절 이요?”

하고 물으니, 자라 대꾸한다.
“내 흥이 나서 그저 부른 것인데 무슨 사연이 있으리오.”

토끼는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여 곱씹어 물었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공을 이루는 게 다 무엇이며, 우리 임금 병이 나으리라 하는 게 또 무슨 말이요?”

자라가 토끼의 말을 듣고 나서,
㉤ ‘이미 물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으니 내 말 뜻을 안다 해도 제 눈이 어찌할 수 없으려다.’

하고, 토끼의 물음에는 대꾸 않고 갈 길을 다그친다.

[C] 토끼 이때까지 살갑게 굴던 자라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그래도 더더욱 빨리 내닫는 자라의 등에서 떨어질까 봐 탄탄한 등껍질만 잔뜩 붙들고 안절부절못하더라.

- 작자 미상, 「토끼전」 -

* 뒤지: 똥을 누고 밀을 씻어 내는 종이.
* 만경창과: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라는 토끼를 설득하기 위해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 토끼는 자라의 의도를 알기 위해 엄살을 부리고 있다.
 - ③ ㉢: 자라의 말은 해학적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 자라는 토끼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⑤ ㉤: 수궁으로 토끼를 데리고 가는 자라의 느긋함이 담겨 있다.
32.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수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 ③ [A]와 [B]는 용왕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다.
 - ④ [A]와 [B]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심경을 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토끼전」은 ‘위기과 극복’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라의 유혹과 토끼의 의심, 토끼의 속임과 용왕의 의심이 반복된다. 특히 토끼의 ‘수궁 행 - 수궁 탈출’로 이루어진 이른바 ‘용궁 위기’가 작품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해 반전이 거듭된다. 이와 같은 작품 구조에는 주인공인 토끼의 고난에 찬 삶, 그런 삶을 강요하는 중세 봉건 체제의 수탈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토끼의 수궁 행은 토끼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걸 의미하
는군.
- ② 수궁에 도착한 다음에는 자라에게 속은 토끼가 용왕을 속이기
위해 애를 쓰겠군.
- ③ 수궁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토끼의 모습에서 고난을 겪은 토끼
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자라의 노래를 듣고 난 뒤 토끼가 자라를 의심하지만 욕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군.
- ⑤ 토끼가 수궁으로 가는 이유는 봉건 체제의 수탈에서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군.

34 [C]에 드러난 토끼의 심리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물생심(見物生心) ② 금상첨화(錦上添花)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④ 좌불안석(坐不安席)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좋다: ‘깨끗하다’의 옛말.
* 자로: 자주.
* 하노매라: 많구나.
* 글로: 그것으로.
* 시기며: 시켰으며.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3음보를 중심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소재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맑고도 그치지 않는 물과 같이 순수함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② 영원히 변함없는 바위와 같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 ③ 한겨울에도 곳곳한 소나무와 같이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④ 사철 내내 끈고 푸른 대나무와 같이 굳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 ⑤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이고 형님 오세요.”
아내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계집 하인에게 무엇
을 들리고 들어온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날 매우 욕을 보셨지요? 못 잡스는 술을 무슨 짝에 그렇게
잡수셔요.”
그는 이런 인사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계집 하인이 든 것을
앗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로 쓴 것을 끄집어내어 아내를 주며
“내 신 사는데 네 신도 한 켤레 샀다. 그날 청목당혜*를…….”
말을 하려다가 나를 결눈으로 흘끗 보고 그만 입을 단친다.
“그것을 왜 또 사셨어요.”
해쓷한 얼굴에 꽃물을 들이며 아내가 치사*하는 것도 들은 채

만 채하고 처형은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올 적에 사랑양반을 줄라서 돈 백 원을 얻었겠지. 그래서 오늘 종로에 나와서 옷감도 바꾸고 신도 사고…….”
 그는 자량과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지며 싹 보를 끌러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중략)

“모다 좋은 것만 골라 샀습니다그려.”
 아내는 인사를 차리느라고 이런 칭찬은 하나마 별로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나는 적이 의외의 감이 있었다.

처형은 자기 남편의 흥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밭살스럽다는 등 그 추근추근하다는 등 말끝마다 자기 남편의 불미한 점을 들다가 문득 이야기를 끊고 일어선다.

“왜 벌써 가시려고 하세요? 모처럼 오셨다가 반찬은 없어도 저녁이나 잡수세요.”
 하고 아내가 만류를 하니
 “아니 곧 가야 돼. 오늘 저녁차로 떠날 것이니까 가서 짐을 매어야지. 아직 차 시간이 멀었어? 아니 그래도 정거장에 일 쪽이 나가야지, 만일 기차를 놓치면 오죽 기다리실랴구. 벌써 오늘 저녁차로 간다고 편지까지 하였는데…….”
 재삼 만류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훌훌히 나간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방에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아내더러,
 “그까짓 것이 기다리는데 그다지 급급히 갈 것이 무엇이야.”
 아내는 하염없이 웃을 뿐이었다.

“그래도 옷감 바꿀 돈을 주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애처롭기는 하겠지.”
 밭살스러우니 추근추근하니 하여도 물질의 만족만 얻으면 그것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의 생활이 참 가련하다 하였다.

“참, 그런가 보아요.”
 아내도 웃으며 내 말을 받는다. 이때에 처형이 사 준 신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혹은 나를 꺼려, 보고 싶은 것을 참았는지 모르나) 그것을 집어 들고 조심조심 펴 보려다가 말고 머뭇머뭇한다. 그 속에 그를 해롭게 할 무슨 위험품이나 든 것 같이.

“어서 피보구려.”
 아내가 하도 머뭇머뭇하기로 보다 못하여 내가 재촉을 하였다.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작히 좋으랴.’
 하는 듯이 활발하게 싹 신문지를 헤친다.
 “픽 이쁜걸요.”

그는 근일에 드문 기쁜 소리를 치며 방바닥 위에 사뿐 내려 놓고 버선을 당기며 곱게 신어 분다.

“어쩌면 이렇게 맞어요!”
 연해 연방 감탄사를 부르짖는 그의 얼굴에 혼연한 희색이 넘쳐 흐른다.

“…….”
 묵묵히 아내의 기뻐하는 양을 보고 있는 나는 또다시
 ‘여자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며
 ‘조심하였을 따름이다.’

하매 밤빛 같은 검은 그림자가 가슴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면 아까 처형의 옷감을 볼 적에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다만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겨우, ‘어서 피보구려.’하는 한마디에 가슴에 숨겼던 생각을 속임 없이 나타내는 구나 하였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새 신 신은 발을 조금 쳐들며,

“신 모양이 어때요.”

“매우 이뻐!”

겉으로는 좋은 듯이 대답을 하였으나 마음은 쓸쓸하였다. 내가 제게 신 한 켤레를 사 주지 못하여 남에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도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처형이 동서(同壻)를 밋다거나 무엇이니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하여 급히 가던 것이 생각난다. 그것을 미루어 아내의 심사도 알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하릴없이 정신적 행복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마는 기실(其實) 부족한 것이다. 다만 참을 따름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난다.

‘어느 때라도 제 은공을 갚아 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에?”

아내는 제 귀를 못 미더워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러면요, 그렇고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깊이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 가며, 오늘날까지 몹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 현진건, 「빈처」 -

* 청목당혜: 흰 바탕이나 붉은 바탕에 푸른 무늬를 놓은 신.
 * 처사: 다른 사람을 칭찬함.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사이의 대결 구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화가 박수근이 결혼 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귀여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꿈꿔 오던 내 아내에 대한 여성상은 당신같이 소박하고 순진하고 고전미를 지닌 여성이었는데 당신을 꼭 나의 배필로 하늘에서 정해주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는 나 혼자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 보기도 합니다. 나의 이 숨김없는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도 당신의 심정을 솔직히 적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 ① 윗글의 ‘나’와 달리 <보기>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인물이군.
- ② 윗글의 ‘나’와 달리 <보기>의 ‘나’는 ‘당신’을 작품 창작의 제재로 삼고 있군.
- ③ <보기>의 ‘나’와 달리 윗글의 ‘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고 있군.
- ④ <보기>의 ‘나’와 달리 윗글의 ‘나’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군.
- ⑤ 윗글의 ‘나’와 <보기>의 ‘나’가 지향하는 아내상은 대조적이라 볼 수 있군.

39. 윗글에서 ‘신발’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게 신발은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죄책감을 들게 하는 소재이다.
- ② ‘나’와 ‘아내’에게 신발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이다.
- ③ ‘아내’에게 신발은 감추어져 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처형’에게 신발은 자신의 부를 은근히 과시하는 소재이다.
- ⑤ ‘동서’에게 신발은 ‘처형’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40. 윗글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자 한다. 화자의 정서를 반영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과 기다림
 - 기다림 없는 사랑이 있으라.
- ② 아낌없이 주는 사랑
 - 진정한 사랑의 길을 찾아서
- ③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
 - 사랑은 덧없는 것
- ④ 젊은 날의 방향
 - 사랑의 아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 ⑤ 삶의 근원적 외로움
 - 고독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41. 윗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의 감정적 울림을 폭넓게 해주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80년대에 창작된 이 시는 표면상 연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

1행의 ‘네가 오기로 한’을 통해 시적 화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①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슴 애리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있음을 의미하는군.
- ③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다시 문이 닫힌다’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군.
- ④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군.
- 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에는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드러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형 진태와 대학 진학을 앞둔 동생 진석에게 6·25 전쟁이 닥친다. 피난지인 대구에서 진석이 군대에 징집되자 진태는 진석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입대한다.

S#38. 낙동강 방어선 - 대대 본부
 세찬 바람에 막사가 심하게 흔들린다.
 ㉠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진태
 대대장, 허리춤에 손 얹고 꼳꼳이 마주 서 있다.

진태 조금 전 동생과 탈영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심장병 환자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 주십시오.
대대장 ……
진태 저더러 탱크를 부수라면 부수고 인민군 목을 베어오라면 베어오겠습니다. 적 진지에 폭탄 메고 들어가 자폭이라도 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대장,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들고 펼치며

대대장 1중대 1소대 이용찬 간질, 1소대 최준호 폐결핵, 1소대 나영길 퇴행성관절염, 1소대 여진철 만성신부전, 1소대 허인호 폐결핵, 2소대도 필요해?
진태 ……
대대장 이 친구들 다 후방 보내? 여긴 누가 싸워. 멀쩡한 놈 하루

아침에 병신 되고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놈 멀쩡해지는 데가 전쟁터야. 탈영할 용기로 싸워. 탱크 부수고 인민군 죽이고 진지를 부순다면 동생 후송이 아니라 제덴들 못 시키겠어?

진태 동생만 보낼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대대장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라구!

진태 ……
대대장 (왔다갔다하며) 얼마 전에 우리 옆 11연대에 자네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거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부대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들 제대했어.

진태 ㉡ (눈이 반짝 빛난다.)
대대장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
진태 ……!

S#39. 낙동강 방어선 - 소대 참호*

태풍이라도 불듯 드센 바람
 낮에 준 유서봉투 보며 속지 꺼내는 진석
 뭔가 쓸 듯 만년필 뚜껑을 연다.
 다가와 봉투 남아채는 진태, 북북 찢는다.

진석 ……
진태 어머니가 유서 쓰라고 만년필 사준 거 아냐.

㉢ 털썩 진석 옆에 걸터앉는다.

진태 유서는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약해지면 안 돼.
진석 (만년필 뚜껑 닫고는) 이게 다 꿈이었음 좋겠어.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구.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꿴다고…….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형이랑 업니는 가게 가고.

진태 ……
진석 아까 투항병 죽으면서 업니, 업니 그랬어. (글썩 눈물 맺힌다.) 난, 난 그렇게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바보 같이 기어 다니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진태 (등 토닥이며) 걱정 마,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S#44. 낙동강 방어선 - 소대 교통호*

허 중사 ㉣ (교통호 위를 오가며) 팔 수 있는 데까지 파라. 한 삽 더 파면, 그만큼 오래 산다. 주위에 아직 돌들이 남아 있다. 마빡 깨지기 싫으면 치워라.

교통호, 참호 파고 있는 소대원들. 수순수순 어수선한 분위기

장 일병 2대대에 3대대까지 넘어갔으면 끝장이야.
영만 고양이 쥐 몰듯이 밀고 오겠구만.
양 주사 이번엔 시신 수습할 사람도 안 남겠네.
임 일병 다 오라 그래, 인민군 놈들! 다 없애 버릴 테니까!

㉤ 작업 중인 참호 위에 올라서는 소대장

소대장 소대 주목! (둘러보며) 허 중사, 고영만, 양길섭, 장민호,

고1

이승철, 완전무장하고 앞으로 나와.

승철 무슨 일인데?

소대장 방어선 진입로에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 지시다.

영만 (불멘소리) 진입로라면 적진 코앞인데요?

소대장 그래서?

영만 아니 뭐..... (돌아서며 궁시령) 꼭 이런 데 뽕한다니까.

듣고 있는 진태, 불쑥.

진태 저도 가겠습니다.

바로 옆 진석, 형의 돌출 행동에 당혹해 한다.

진석?

소대장 좋다. 이진태까지 포함해서 간다. 나머지 대원들은 일절 동요없이 진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진석 (얼떨떨) 형.....

진태는 이미 탄띠 차고 수류탄 쟁겨 메고는 교통호 위로 오른다. 손쓸 수도 없는 상황, 얼떨떨하게 보는 진석.

- 강계규 · 한지훈 · 김상돈 각본, 「태극기 휘날리며」 -

* 참조: 야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
* 교통호: 참조와 참조 사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판 구덩이.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석은 진태와 함께 탈영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② 영만은 소대장의 지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양 주사는 다가올 전투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진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진석을 안심시키고 있다.
- ⑤ 대대장은 병사를 후방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44.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클로즈업(close-up): 피사체의 주요 부분을 특히 크게 찍거나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기법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태극기 휘날리며」는 1970년대에 성행했던 반공 의식 고취를 위한 전쟁 영화들과는 달리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애국주의보다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라는 가족주의가 이 영화의 핵심인 것이다.

- ① S#38에서 진태를 향한 대대장의 말을 통해 대대장에게는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S#39에서 이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진석의 말을 통해 가족을 향한 그의 절실한 그리움을 알 수 있어.
- ③ S#39에서 죽지 않겠다고 울먹이는 진석의 모습을 통해 반공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어.
- ④ S#44에서 임 일병의 말을 통해 임 일병은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S#44에서 지뢰 매설 작전에 자원하는 진태의 모습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애국심을 알 수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